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부지 현 주차장 유력

광주시 용역 중간보고회 “2024년 완공 목표” 1000억 예산·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관건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부지로 현 전시관 주차장 일대가 유력해졌다. 광주시는 본격적으로 계획수립에 들어갔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국비 확보 등 넘어야 할 관문이 한 둘이 아니어서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사업 추진 경과,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중

합 계획상 시각 미디어 문화권인 현 비엔날레 전시관 인근 주차장을 적정 부지로 판단했다. 이 일대에는 시립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이 몰려 있다. 광주 비엔날레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시유지도 다수 포함됐다.

광주시와 용역사는 광주 22개 부지를 검토해 6개 방안으로 압축한 뒤 적정 부지를 잠정 결정했다. 6개 방안은 현 비엔날레 전시관 재건축, 전시관 리모델링, 비엔날레 주차장, 옛 국군 광주병원, 옛 보존

병원, 소태동 위생 매립지 부지다. 광주시는 이른 시일 안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마쳐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국비 500억원, 시비 500억원 등 1000억원을 들여 2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전시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시실, 행사 지원 공간, 아카이브, 교육 참여 프로그램 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시작해 3년 만에 열린 3회 행사를 빼고는 격년제로 진행해 올해 13회째를 맞는다. 현 건물은 260억원을 들여 2005년 완공됐지만 낡고 좁

아 국제 전람회 시설로는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신축 요구가 나왔다. 광주시는 행정 절차 1년, 설계 1년, 공사 2년 등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비 등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인 데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도 낙관할 수 없어 총 사업비 규모, 완공 시기 등은 유동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앙부처 협의, 예타 통과, 국비 확보 등 남은 행정 절차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라며 “국제 행사 개최 여건을 개선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정부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

광주시에 대한민국 대표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에게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아동의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 시도에서는 최초로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아동 권리보호 31일 오후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참석자들과 함께 ‘보호의 권리’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3대 핵심과제로 ‘제2도약’

전남도 ‘2020 6+3 플랜’ 가동...의과대학·기후협약총회유치 총력

전남도가 올해를 새천년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의 6대 프로젝트 실행 원년으로 삼는데 이어 의과대학,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삼았다.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는 에너지신산업, 관광, 바이오, 미래 운송기기, 농수산, 스마트시티 등으로 모두 3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2일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35개 사업은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해 각 실·국별로 정부부처를 상대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유치 등 3대 핵심 과제는 박병호 행정부지사, 윤병태 정

무부지사가 각각 전담조직의 단장을 맡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20년을 ‘제2의 도약’의 해로 삼아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와 3대 핵심과제를 묶어 ‘2020 6+3 플랜’을 추진하기로 했다.

블루 이코노미는 1차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청정 자원과 역사·문화 자원,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이 접목된 신 개념의 발전 비전이다. 올해를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의 원년’으로 삼은 전남도는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전략과 연계해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는 서남해안 일원에 48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8.2GW(기가와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12만여개의 전남형 상생일자리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한전과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 2월에는 발전사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상반기 중에는 항만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전남형 상생일자리 선포식’을 갖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3대 핵심과제와 관련해 전남도는 이미 울초 양 부지사를 단장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민간 유치위원회와 유

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태세에 나섰다.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는 도내에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확충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는데도 힘을 쏟는다. 197개국 2만50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 국제회의인 COP28은 전남과 경남 그리고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이 함께 공동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의 지지 선언으로 유치 전망이 높아졌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또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통해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한 나주 산학연 클러스터의 역량을 배가시킬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교통안전 의식’ 전국 최고

교통문화지수 평가 전국 1위

광주시는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교통문화지수’ 평가 결과, 전국 특·광역시 중 광주시가 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운전형태, 보행행태 등 3개 영역에서 정지선 준수율,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교통사고 발생 정도 등 18개 항목을 조사·평가해 교통안전 의식수준을 지수화한 수치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 14위에서 2018년 2위로 뛰어 오른 후 2019년 평가에서는 전국 1위로 교통안전도시임을 증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교통안전 전문성 및 예산 확보, 교통안전 정책 이행정도 등을 나타내는 ‘교통안전’ 지표에서 13점 만점에 10.44점을 기록, 평균 5.48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매월 1회 이상 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교통문화연수원 등 17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을 구성해, 문제 발생 단계에서부터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인스톱 체계를 운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자치구에서는 광주 남구가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최고점을 기록해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남구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5명으로, 지난 2018년 사망자 11명에 비해 54.5% 줄어 들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올 해양수산 분야 5300억 투입

시·군·기관 등과 업무공유 토론회

전남도가 2020년 해양수산 분야에 5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시·군, 기관 등과 업무 공유 및 성과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전남도는 2일 “지난 31일 도와 시·군, 수협, 서해어업관리단, 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 관련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목포시 등 16개 연안 시군 해양수산 담당과장 및 유관기관이 참석, 올해 주요 해양수산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각 유관기관별 공동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올해 전남도는 수산업의 미래 성장기반 마련, 수산식품산업 전략 육성, 복합물류항만 조성과 어촌정주환경 개선 등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4대 과제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시책은 광양항 기반시설 확충으로 활성화 추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해양쓰레기 제로화 프로젝트 추진, 어촌 뉴딜300 사업추진,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국립 섬 발전연구원 설립 유치 등이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제도와 시책도 소개됐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금 70만원으로 상향 지원, 도서지역 여객 생활기간 운임 8340원 이하 50% 및 5t미만 화물차에 50% 운임 확대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및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될 사업 발굴을 위해 도와 시·군이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목포·무안·순천 실내박물관’ 2월 관광지 선정

전남도는 2월 들어 다양한 전시·체험을 즐길 수 있는 ‘목포, 무안, 순천 실내박물관’을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

전남도는 2일 “순천의 뿌리 깊은 박물관·기독교역사박물관, 목포 자연사박물관·생활도자박물관·문예역사관, 무안군 오송미술관·못난이동산 등을 2월의 관광지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낙안읍성과 함께 월간 문화잡지 ‘뿌리 깊은 나무’, ‘섬이 깊은 물’ 발행인 고한창기 선생이 생전에 수집한 6500점의 전통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뿌리 깊은 박물관’을 순천의 유명 박물관이다.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은 100여년 전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의료선교에 매진했던 애양병원 초대원장 맨튼윌슨이 닮던 포드 T모델과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사용했던 드럼통, 세탁기, 가방 등은 당시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목포자연사박물관은 공룡화석, 광물 등 세계 희귀자료와 서남권 자연생태자료를 수집·전시하고 있어 가족 여행지로 인기몰이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062)531-3530

H.010-9229-3530

MODERN (트윈스틸) 시공문의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